



“상급종합병원 지정해 의료체계 개선·물류비 경감 계속 노력”

“4·3 추념식 불참 등 제주 홀대론이 투표에 반영 현안 해결 위한 상임위 희망... 제주 성장에 최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지역 3명의 후보가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투표, 개표가 마무리되며 선거는 끝났지만 승리의 기쁨과 함께 찾아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났다.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11일 '4·10 총선 당선인과 함께'라는 특별 대담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 KCTV 제주방송 양상현 보도부장의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당선 소감과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양상현 보도부장(이하 양)=당선 소감과 함께 제주도민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문대림 당선인(이하 문)=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 4년 5기 만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언제나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찾았다. 성과와 소회는 정지로 보았다.

▶김한규 당선인(이하 김)=22개월 만에 다시 도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됐다.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더 큰 성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두 당선인과 함께 고민하며 민주당에 주신 사랑에 보답하겠다.

▶위성곤 당선인(이하 위)=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반영하는 생활정치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

▶양=이번 선거에서 17대 이후 6회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제주 선거 결과의 의미는?

▶김=싹쓸이보다는 석권이 어떨까. 도민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여

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4·3 희생자와 유족이 많은데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나 해병대 채상병 사건처럼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태도,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도민들이 서운했다고 생각한다.

▶문=제주도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과 제주 홀대론에 대한 평가도 뚜렷했다.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23회 하면서 수백조원 규모의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는데 제주를 빠져있었고 취임 후 제주에 온 적이 없다. 1호 공약이라고 했던 관광청 등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바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빠져 있는 등 의지가 없다. 싹쓸이라 했지만 저는 제대로 평가받았다고 본다.

▶위=제주도민과 국민들은 늘 현명하고 이번 선거도 현명하게 판단했다. 저희들이 쓰일 곳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대, 그 기대가 민주당이 더 나왔다고 생각된다. 4·3추념식 때 대통령이 불참해 감쪽 놀랐고 대통령 추념사 대독도 아닌 총리 추념사였다.

▶양=선거 기간 특별한 기억은?

▶문=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아쉬웠던 점들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데 만족했다. 선거운동 기간 골목 유세를 하는데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연호해 준 적이 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제주, 희망의 땅 제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니 지치지 않았다.

▶김=저 역시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정권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잘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쉬움이 있다. 의정활동



11일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4·10 총선 당선인과 함께' 특별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왼쪽부터), 제주시를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이 당선 소감과 의정활동 구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에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할 생각이다.

▶위=3선 도전이라 지난 8년간의 평가가 아주 냉정했다. 그 평가가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바뀌자 선거운동이 좀 더 편안해졌다. 겉으로 평가에 대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렸다. 성산포에서 유세 중 트럭에서 내리던 분이 '살려달라'고 3번 외치셨다. 그만큼 서민 경제가 피폐하다는 걸 책임감으로 느꼈다.

▶양=국회 입성 후 의정활동 구상과 가장 먼저 나설 분야는?

▶김=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섬에 사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추가배송비 등 물류비 불만에 대해 지난 2년간 나름 노력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두 당선인들과 해결·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섬에 사는 제주도민들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정치는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한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제주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등을 구체화할 생각이고, 하원테크노밸리 사업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더불어 첨단과학산업단지도 육성하고자 한다.

▶문=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농민들이 어렵다. 고금리 완화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싶다. 제주도는 엄청난 해양자원을 가졌음에도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나서고 싶고 도시주택 기금도 제주도를 위해 쓰이게 하는 등 경제 자치를 해보려고 한다.

▶양=각자 원하는 상임위원회는?

▶위=세 명이 함께 의논해 제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저는 3선이기 때문에 두 분이 먼저 결정하면 나머지를 메우는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농해수위, 4·3 해결을 위한 행안위,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위도 있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 가고 싶다.

▶김=제주에 도움이 돼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와 벤처타운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 산자위, 그

게 아니라도 경제 관련이라면 어디든 제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문=저도 생각은 농해수위이나 두 분과 협의하겠다.

▶양=제주 현안 관련해 제2공항의 올바른 해법은 어떻게 보나?

▶위=셋수로 9년이 넘어가고 있고 여전히 찬반이 상존하고 있다. 결론을 낼 시기에 왔고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씀하셨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풀어가면 빨리,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한다.

▶양=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당선인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문=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에 두 분 의뢰하고 머리를 맞대겠다. 제주도정의 로드맵대로 2026년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주민투표는 법령에 장관이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영훈 도정에서 정책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찬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 촉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갈음하는 형태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양=제주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 역할 필요한다.

▶김=홀대론은 여러 지역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제주 홀대가 더 문제다.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홀대론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저희 3명은 국회의원 300명 중 1%에 불과하지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정부가 도민들에 관심 갖고 그 관심이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하겠다.

▶양=마지막 한마디.

▶문=초심, 성심, 진심으로 일하겠다. 제주가치에 기반한 도민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김=도민 속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고 도민 결에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제주 정치인이 되겠다.

▶위=도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선 중진의 책임감을 갖고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4-1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임용예정직위: 비상임이사
- 선발인원: 1명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지방공기업법에 의거 1년 단위 연임 가능)
- 담당직무 및 직무수행요건
 - 담당직무
 -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
-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공사 정관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직위	응모 자격
비상임이사	1.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정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경영·회계·세무 등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소지자 6. 경제, 경영 및 노사관계 등 기업경영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2024. 4. 11.(목) ~ 4. 26.(금) 18:00까지
 -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채용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과 문

품종보호권(특허권)을 침해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귀포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인 본인은 만감류 품종의 하나인 씨네트 모 품종(품종보호권(특허권)과 전유실시권자(한라종묘)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산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보호권자 현성익, 전용실시권자 한라종묘 양

‘씨네트’모품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네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모품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네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 타 업체에서 모품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수 나눔(고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모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모품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네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시정 조치 현황 · 농가 : 17농가 · 업체 : 1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 락 처 : 010-3696-2057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新) 一(일) 祚(作)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정공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세관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